



2011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이 대통령 "국과위 명예위원장 맡겠다"

글 한국과총 정책홍보팀 김 현 hkim@kofst.or.kr

지난 1월 7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직접 국과위 위원장을 맡아서 젊은 과학자들이 활기차게 연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공계에 모여들게 하고 싶은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겠다. 좋은 위원장을 모시고 잘 뒷받침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도 회장보다 '명예회장'이 더 힘이 세다"며 '국과위 명예위원장'을 언급했고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 "과학기술 일으키면 대한민국이 일어선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인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과학기술의 중요

성과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의전과 촬영을 위해 단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있는 과학기술인들을 가까이 불러 모은 뒤에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분야보다도 합리적으로 혁신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를 한번 일으켜주면 대한민국도 함께 일어선다. 우리 과학계가 힘을 모아서 총력전을 한번 해야 한다"며 "과학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 분발해서 앞서 가줘야 된다. 이 부탁을 하려고 이 자리에 마음먹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과 말미에 청년시절 이태원 시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와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일을 즐기는 자세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옆가게 물건을 흥보다 시장 전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결국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 생선가게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 격려하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과학계 전체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또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결승전



▶ 1 이기준 한국과총 회장 2 김도연 한국공학한림원 원장 3 김은성 KAIST 교수 4 김지희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선 장승기 선수를 예로 들며 “같은 일도 시켜서 하면 노동이지만, 즐거워서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뒤 “많은 과학자들이 즐겁게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자”고 말했다.

#### 이기준 과총회장 “올해는 두 마리 토끼 잡는 해”

대통령 연설에 앞서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이후 3년 동안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줄곧 참석해 온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 의지와 관심을 보이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매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준 데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기준 회장은 과학기술인을 향해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2011년’을 제안하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두 마리의 토끼’로 국과위와 과학벨트, 기초과학 발전과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을 꼽았다.

또 김도연 한국공학한림원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새해 인사를 보통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인들은 복을 만들어내야 할 사람들”이라며 “새해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많이 만들어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 산업현장 일선에 있는 과학기술인도 새해 다짐

연구실과 산업 현장 일선에 있는 과학기술인의 새해 다짐도 이어졌다. 지난 해 ‘초고체’를 발견해 세계 물리학계의 주목을 받은 김은성 KAIST 교수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대제철소 강 주 기장은 당진공장 현장에서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고로 2기를 가동, 800만 톤의 철강을 세계 최고의 품질로 생산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 주 기장의 새해 각오를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장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며 “품질과 함께 생산성도 세계 최고로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공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건배 제의에 나선 극지연구소 김지희 선임연구원은 “우주로, 남극으로, 도전대상이었던 공간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일구어 내면서 대한민국의 과학영토가 나날이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라는 건배 구호를 선창했다. 건배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과학기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김기형·정근모·김시중·채영복·이태섭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와 출연기관장 및 연구회 이사장, 기업 연구소장, 정부 부처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 신년인사회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

반갑습니다. 내가 3년째 여기 오고 있습니다. 3년째 매년 오는 단체는 여기밖에 없는데, 세 번 만났으니 가까워졌으니까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이제 201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참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반복되며 발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발전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원도 없고, 분단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여건 하에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만이 그런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은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전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서로 협력하자며 많은 곳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남미에 가서 정상 회의를 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와서 반갑다고 남의 나라 수도의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붙여 놨더군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이 부럽다. 우리는 저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과거 같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고 최첨단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 뒷받침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남이 따라오면 또 새로운 기술 내놓으니까 정말 바쁘니까. 저도 이 기술 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오고 대학생들도 왔는데, 조금 전에 포스텍의 백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다가 의과대학으로 많이 간다고. 나는 기초과학을 해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의과대학이나 기초과학이 전부 합쳐져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듭니다. 굳이 그쪽으로 안가더라도 서로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초과학과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과학 분야에 많이 와서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아니 이미 앞선 분야도 있고, 늘 경쟁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을 보고 통계를 봤더니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총 28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55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수출에서 7위를 했습니다. 금년에 1조 달러 통상을 달성하게 되면 역사상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9개 나라인데 그 멤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G9에 들어가는 그런 위상에 있는데, 과학분야는 26개 나라 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노벨상을 14번이나 받고, 다른 분야까지 하면 19명이 받았죠. 인구가 적은 스위스가 15명인가, 16명인가 받았더군요.

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발전하는 기간이 원

체 짧아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억울하게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생각하면 억울할지 모르지만 상대가 생각하면 안 그럴지도 몰라요. 억울하게 놓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받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며 많은 사람이 받지 않겠습니까? 5년 또는 10년 안에 우리 과학자들이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에 가보니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반이 안 되더군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미국이 59달러이고 우리는 26달러, EU 국가 평균이 46달러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 수출 7위인데, 이 정도의 생산성밖에 안 된다니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희망이 있더군요. 다른 데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우리는 생산성을 20%만 올려도 G7에서 G5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노사가 협력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 고비가 아닌가 보는데, 그래서 실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살길은 혁신적 기술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국방비도 쓰죠. 예산의 30% 가까이 국방비를 쓰면서 연구도 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쁘니까. 그렇지만 우리 과학계가 힘을 모아서 총력전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과학자들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직접 위원장을 해서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활기차게 연구하게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고 전부 모여들게 하고 싶는데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직접 위원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명예위원장이 됐습니다(일동 박수). 헌법에 그건 관瞻하다고 합니다(일동 웃음).

기업에도 가보면 명예회장이 권력이 더 세요(일동 웃음). 그래서 내가 명예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위원장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과학계에서 추천해 주시는데, 이 사람 시키면 저쪽에서 안 된다, 저 사람 시키면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되더라도 일 잘하도록 밀어주면 누구도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밀어주면 잘할 수 없습니다. 5년에서 10년쯤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할 때인데, 생선가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집 아줌마가 말도 잘하고 제일 똑똑했어요. 나는 노점상이라 가게 앞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런데 손님이 오면 그 아줌마가 자기 혼자 살려고 '다른 데는 물이 다 갔다. 우리 가게만 싱싱한 생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그 집에 가는 거죠. 처음엔 장사가 잘되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시장 생선은 물이 전부 갔다'고 알려지게 돼서 그 작은 시장에, 조합장이 회의를 해서 그 아줌마를 내쫓았어요. 지금은 시장이 아니지만 그

게 옛날의 이태원 재래시장이었어요. 그 후 시장에 오는 손님에게 '이태원 시장 생선은 다 싱싱하고 어디보다 낫다'고 어느 가게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일동 박수) 과학만큼 합리적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보다도 합리적으로 혁신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한번 일으켜 주시면, 대한민국도 일어섭니다. 좋은 인재 만들어서 기업에도 보내고 기초과학연구소에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R&D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는 교육에 어떻게 투자한다' 했더니 그 후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이 50개 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랬겠지만 다 독려하느라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과학계를 리드하는 분이 다 모이셨으니까 여러분이 모두 단합해서 후배, 어린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하겠지만 과학계 스스로가 젊은 과학자를 키워주고, 어린 과학자가 희망을 갖게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전부 지난 연말에 받았습시다. 예산은 12월 초에 통과시키고 연내에 다음해 목표를 브리핑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예산을 지자체에 바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간 업무보고를 1월에서 3월에 했어요.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이런 낭비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업무보고 다 받고 예산 집행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30일에 보고를 다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뭘 하고 있나, 카메론 총리는 뭘 하고 있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 가 있고, 카메론 총리는 영국이 날씨가 춥다고 태국 방콕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사르코지 대통령도 어느 섬으로 휴가를 갔고, 나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더군요(일동 웃음, 박수).

내가 옛그제 기업인들 행사에 갔더니 주요 기업인들이 거의 다 왔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연말연시에 휴가도 없이 기업인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시무식을 하며 다 같이 잘하자고 하겠어요. 그 나라가 안 되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위기를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거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라가 안 되면 안 되죠.

나는 과학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 분발해서 앞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정부가 할 수 있

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양적으로는 다 채워 줄 수는 없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잘 해보자고 말입니다.

오늘 젊은 과학자들, 어린 과학자들도 와 있는데요, 나는 20대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겁도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해요. 광저우 가서 메달을 따고, 육상에서 100미터, 200미터와 같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따니다. 우리가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경기 하는 것을 보면 스포츠면에서의 예술입니다. 그것도 융합이에요. 예술과 스포츠를 결합해서 한니까 심판들도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17살 먹은 아이들이(U-17 여자월드컵 선수들) 1등하고 왔어요. 승부차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찬 17살 먹은 장승기라는 선수에게 어떻게 찼느냐 했더니 '뽕 차니까 들어갔어요'라고 합니다. 차라고 해서 찼느냐 했더니 원래 5명만 차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찰 지 모르고 옆에 서 있다가 자기가 그냥 나가서 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누가 차라고 할까 궁리하는 중에 벌써 나갔다는 겁니다(일동 웃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 우리는 실수할까 불안해서 서로 안 차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자기가 나가서 뽕 차니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여섯 번째로 차면 불안해서 전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합니다.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목표가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 1등, 아시아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1등을 목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이 젊은 20대가 바로 G20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을 목표로,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회의하듯이 자기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세계 1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과학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1등을 해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린, 젊은 세대에게 소위 기류가 있어요. 장승기 선수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보는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데 하는 우리는 얼마나 즐겁겠어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분야든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일도 시켜서 하면 노동입니다. 자기가 기뻐서 즐겁게 하면 성과를 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즐겁게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그런 기상으로 나가서 이 과학계가 금년에 국운이 융성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